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 민주당 ‘경남미래지원단(김진표\*단장, 민홍철, 김정호, 김두관, 고영인, 운영덕, 최종윤, 김경만, 전용기 의원)’ 경남 찾아 이재명 지지 호소 - 이 후보의 신산업 육성·부울경 메가시티 등 8대 공약 반드시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경남미래지원단(단장 김진표) 국회의원 9인(김진표, 민홍철, 김정호, 김두관, 고영인, 운영덕, 최종윤, 김경만, 전용기 의원)이 11일 경남 창원·고성·통영 등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 김해와 양산을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김정호, 김두관 의원과 경남 출신 전용기 의원이 함께하면서 힘을 실었다. 경남미래지원단은 이재명 후보의 ‘경남 8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남미래지원단장은 “경남도민께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창원·통영·거제·양산·김해시와 고성·남해군 등 무려 7곳의 기초단체장을 선택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8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남에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창원시를 방문해 ‘경남 8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해신항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완성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기후위기 대응 경남형 그린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 △친환경 스마트선박 클러스터 조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 △경남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가야사의 온전한 재조명과 가치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가 주 내용이다.

이날 행사에 함께 한 민홍철(경남 김해시 갑) 의원은 “경남미래지원단의 방문이 ‘경남 8대 공약’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경남도민들의 오랜 꿈과 희망

을 이뤄줄 수 있는 최적임자” 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기도 한 민 의원은 방산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방산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지원’ 도 약속했다.

김 단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산적한 부동산, 교육, 일자리, 인구감소등의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꼽았다. 이를 해결해야 나머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이 후보야 말로 지방분권과 자치, 자생에 대한 철학이 굳건한 후보” 라고도 강조했다.

경남미래지원단은 “경남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 발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하고, 이재명 후보가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대로 완성시켜 ‘대한민국 남부 수도권’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사활을 걸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빈틈없이 챙기겠다” 고 역설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미래지원단은 △경남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방산산업 간담회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문 △통영·거제·고성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간담회 △통영 기독교 연합회 간담회 △고성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끝)

<사진 첨부>





